

전문의·환자·보호자 함께 치료방향 논의 '암치료 최적 시스템'



건강 바로 알기 다학제통합진료

박치영

조선대병원 암센터장

#. 1,2차 병원에서 암 의심 진단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은 진료 초기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 진료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환자는 물론 온 가족이 나서서 해당 암에 대해 연구하고 나아가 우수한 병원이나 의료진 물색에 들어간다. 이어 진료와 치료를 받을 병원·의료진을 결정한 뒤, 진료 예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환자와 가족들은 또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규모가 큰 대형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일수록 암 최종 진단을 위한 진료 예약부터 쉽지 않다. 여기에 어렵사리 진료를 받아도 CT나 MRI, PET 등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는 데에도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 이후 수술을 마쳐도 방사선치료나 항암치료 등을 위해 또다시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피를 말리는 날들을 이겨내야 한다. 특히 암이 여러 부위로 전이돼 다양한 분야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려움이 한층 클 수밖에 없다.

조선대병원은 이같은 지역 암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운영해온 '다학제통합진료'가 8년여 만에 지역 최대 건수인 1400례를 돌파하며 국내 암 다학제 진료 최고 기관으로

대장암 등 13개 진료팀, 환자·보호자 의견 수용 치료계획 결정
진료부터 검사·치료·수술까지 '맞춤형 서비스'...만족도 높아

발돋움하고 있다.

암은 조기발견과 빠른 치료가 완치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보통 암이 생겼을 때 진료체계는 내과에서 진단을 하고 외과적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등 치료방법이 결정되면 환자가 각 진료과마다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는 과정을 거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대장암 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장암은 대장의 가장 안쪽 표면인 점막에서 발생한 암으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위암과 함께 흔하게 발생하고 빈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자가 배변의 변화, 복통, 체중감소, 하혈 등으로 병원을 방문해 '암이 의심된다'라는 말을 듣고 난 후, 정확한 검사, 진단, 수술을 받을 때까지 환자는 여러 진료과를 예약일자에 맞춰 방문해야 하는 번거롭고 불편한 과정을 겪게 되며 상황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특히, 소위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수개월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신속한 수술과 치료가 사망률 낮춰=1명의 환자에 대해 의료진 1명이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기준 주치의 위주의 진료방식은 치료시기가 중요한 암환자의 경우 검사, 치료, 수술 등의 효율



박치영 센터장

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암환자의 경우 암 진단 후 1개월 이상 수술을 기다린 환자는 1개월 이내 수술을 받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따라서 최적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택해 빨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학제통합진료의 경우는 초기 진료단계부터 관련 진료과 전문의들과 상담을 통해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다.

조선대병원 다학제통합진료는 여러 분야별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여 진단부터 검사, 치료, 수술 등의 일정을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환자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는 다학제통합진료에 참여해 여러 진료과 전문가들로부터 각 치료방법에 대한 장단점과 효과를 듣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을 듣는 등 자신의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수용해 치료계획을 결정하게 된다.

다학제통합진료를 통해 6명의 전문의가 10분씩



다학제통합진료팀 전문의들이 암이 여러 부위에 전이된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해 토론했고 있다.

토론하더라도 60분의 진료를 받은 것과 같아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대장암·위식도암·유방암 등 주요 암 13개 전문 진료팀 운영=현재 조선대병원은 주요 암종을 13개로 분류해 전문 진료팀(대장암팀, 위식도암팀, 유방암팀, 폐암팀, 갑상선암팀, 비뇨기암팀, 두경부암팀, 간담췌암팀, 혈액암팀, 부인암팀, 피부암팀, 근골격계암팀, 중추신경계암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명의 환자를 위해 담당 진료과를 비롯해 암 치료와 관련된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과 전문의들이 단계별 치료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치료방향을 협의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학제통합진료 내용을 보면 대장암(379건)이 가장 많았고 유방암(188건), 위식도암(108건) 순이었다.

박치영 조선대병원 암센터장(중앙혈액내과 교수)은 "각 분야별 전문의가 모여 환자에게 필요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다학제통합진료'는 암 치료에 최적의 시스템"이라며 "조선대병원은 전문의들의 높은 참여로 다학제통합진료가 1400례가 넘었다. 앞으로도 암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결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찾아가는 보건·의료기관 간담회...전남지역 9곳 방문

전남권역 책임의료기관 화순전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실장 박원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최근 '찾아가는 보건·의료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공공보건으로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해남보건소, 강진보건소, 장흥보건소, 해남우리종합병원 등 전남지역 보건·의료기관 7곳을 직접 방문해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별 보건·복지 자원 파악 및 전문인력 교육요구도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원은정 교수·전성준 전공의

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 구연상·포스터상

화순전남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원은정 교수와 전성준 전공의가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63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MCE 2022)'에서 각각 우수 구연상과 우수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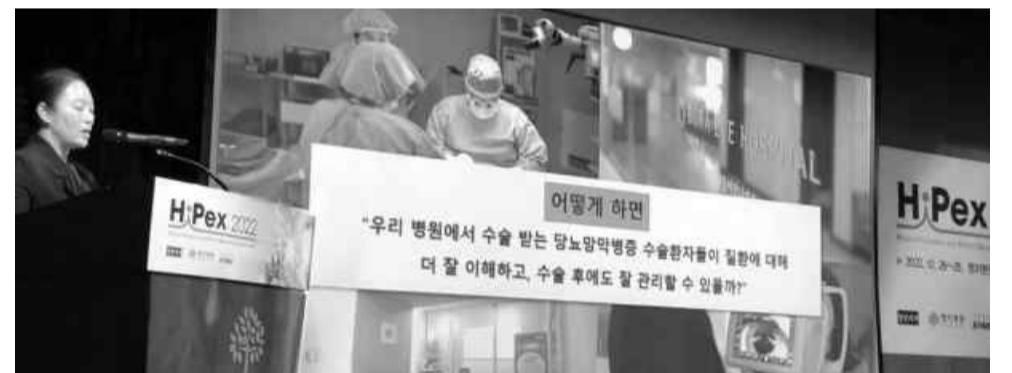
스터상을 수상했다. LMCE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 2019년 기준 36개국에서 1888명의 참가자가 등록한 대규모 학술대회다. 이번 'LMCE 2022'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3

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원은정 교수는 임상미생물학 분야의 '가려운 표현형을 가지는 플루코나졸 약제 비감수성 칸디다 파파실로시스 : 새롭게 출현한 병원균감염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전성준 전공의는 수혈의학 분야의 '약한 B형을 가진 ABO 아형의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알고리즘 접근법'이라는 제목으로 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보라안과병원, HiPex 2022 병원혁신사례 선정



보라안과병원이 최근 환자경험과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의료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HiPex(Hospital Innovation and Patient Experience Conference, 하이펙스)에서 병원 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사진)

보라안과병원의 혁신 사례는 서비스 개선팀 관련이었다. 환자의 숨어있는 니즈를 찾고 의료 서비스 경험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팀으로, 이번 하이펙스에서 '당뇨망막병증 수술환자의 수술 후 자가관리 서비스 경험을 위한 개선활동'을 발표했다.

서미라 보라안과병원 간호부장은 "환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과 환자의 숨어있는 니즈와 문제점을 발견했고, 이에 근거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라안과병원만의 특화된 서비스 디자인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디자인 개선 활동으로 ▲자가간호체 크리스트 개발 ▲당뇨망막병증 환자 전용 교육 자료 제작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 내문 제작 등을 통해 환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했고, 그 결과 환자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채희중 기자 chae@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